

만남

발행처: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
주 소: Danzigerstr. 62·20099 Hamburg
전 화: 040/ 24 34 92
F a 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www.mannam.de
E - Mail: korea-ham@mannam.de
사목회장: 김부남(베드로) Tel 040/63 60 69 06



7 월중 미사 안내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미사 30 분 전부터 고해성사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월 7:30 화 19:00 수 19:30 목 19:00 금 7:3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Bremen : 넷째 주 토요일

♣ **Bankverbindung** :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Dresdner Bank **BLZ** : 200 800 00 **Konto-Nr.** : 560 79 29 00

Pfingsten – biblische Grundlagen – Pfingstereignis

(Quelle: Pfingsten Info)

Anlässlich unseres diesjährigen Pfingstfestes, das wir seit langem einmal wieder in heimatlichen Gefilden, nämlich im schönen Hammer Park, miteinander verbrachten, möchte dieser Artikel vor allem den Jüngeren unter uns die besondere Bedeutung von „Pfingsten“ nahe bringen.

Wie Lukas, der Autor der Apostelgeschichte, erzählt, hatten sich



die Jünger Jesu am Pfingsttag, dem jüdischen Erntedankfest, in Jerusalem zu einer Gemeinschaft versammelt. Völlig unerwartet erhob sich vom Himmel her ein Brausen wie von einem Sturm herrührend. Es erschienen Feuerzungen, die sich zerteilten und sich auf jeden der Männer niederließen. Die Wirkung war überraschend, denn die Ergriffenen konnten sich plötzlich in vielen Sprachen verständigen. Sie gingen

hinaus auf die Straßen und Plätze und verkündeten, was sie von Jesus gehört und gesehen hatten.

Die Geistsendung an Pfingsten war, wie es im Neuen Testament nachzulesen ist, der Ausgangspunkt für das missionarische Wirken der Jünger Jesu. Theologen sehen daher in diesem Ereignis die Geburtsstunde der Kirche. Das Pfingstfest kann somit auch als Geburtstagsfest der Kirche bezeichnet werden.



Die Koreanische Gemeinde in Hamburg verbindet alljährlich die Begegnung mit Menschen in der Natur und in geselliger Eintracht mit diesem christlichen Hochfest. Diesmal waren auch viele Landsleute aus Osnabrück, Bremen und Hannover in Hamburg. Es war wieder einmal eine Meisterleistung der Organisatoren und ein wirklich schöner Tag für alle !

Thomas Strobel

원죄 없으신 여왕이신 천상 어머니.

어머니께 바쳐진 아름다운 모퉁이, 자녀들인 저희들 어머니께 찬미와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저 이곳에 모였나이다.

인자하신 어머니, 굽어보시어 저희들의 머리위에 위로와 사랑의 손길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참고 기다려주신 그 깊으신 인내. 쏟아주신 그 크신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지금껏 저를 소중히 보살펴 주신 어머니께 잘못된 생각을 풀려와서 죄송합니다. 저의 불손했던 마음가짐과 언행 때문에 주님과 어머니 성심을 몹시도 아프게 해드렸사옵니다.

이제 그 모든것 가슴 아파하며 뒤우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머니. 당신은 제가 당신을 잘 몰라서 찾지도 못한채 홀로 아픔과 절망에 쓰러져 있었을때도 그곳에 저와 함께 계시며 저도몰래 저를 보살펴 주셨나이다. 당신은 제가 당신의 현존을 느끼기도 전에 당신을 찾기도 전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아오니 이제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 원하며 저를 당신께 바치는 지금 틀림없이 저를 사랑으로 받아 주시리라 믿으며 제 마음 깊은곳으로 부터 기도 드리오니 선하신 성모여, 이부족한 봉헌을 받아주소서.

저는 지금 저를 자녀로 받아 주시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에 의지하며 저자신과 가족과 제가 소유한 모든것을 어머니께 내어 드립니다.

저를 괴롭히는 모든 근심, 걱정, 아픔을 어머니 성심에 털어 놓습니다.

특히 제가 오랜 세월 (20여년) 힘겹게 지고 있는 입몸의 쓰시는 통증과 그로인한 슬픔과 절망감. ..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번민하는 문제들, 혼자힘으로는 해결 할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모두를 어머니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부부간에 갈등으로 주고 받은 상처들, 괴로웠던 모든일, 용서하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

저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 저의 모든 외목과 애착.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모든것을 인자하신 어머니 성심에 내어 드리오니 받아주시어 제 영혼에 무겁게 짊어진 슬픔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어머니. 당신은 저희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시오니 자애로우신 눈길로 제게서 때지 마시고 항상 제 곁에 계시어 주십시오.

오늘 이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를 어머니의 모성 어린 성심에 감사안마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성심의 집으로 데려가 주시어 세파에 지들은 우리들의 아픔과 영혼의
멍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어머니. 당신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시오니 제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방황하고 있을때 제손잡아주시어 주님께 인도하여 주소서.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에 두려움 없이 저를 마끼오니 저를 받아주시어 당신 아드님
가신 그길로 데려가 주소서.

은총의 어머니시여. 제눈을 열어주시어 모든 인간들 하나 하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게해 주십시오. 아드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제게
얻어주소서. 그분은 더 잘 앎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저 깊이로부러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제 마음은 어둠과 이기심과 게으름
으로 차잡기만 하여 너무나 괴롭습니다. 진정 저는 이런 저의 마음과 저의 삶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스려온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수 있도록. 주님께 대한 내 사랑 자라고 자라서 삶의 나날에
더욱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성민들께서는 가르쳐 주셨나이다. 어머니께 종재를 청하거나 보호를 청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일은 결코 없었다고요.. 또한 당신은 제가 당신의 도움 받기를
염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염망으로 저를 도우시길 원하고계신다고요... 하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나약함과 죄스러움에 실망치 않고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나아갑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오니 제 영혼에
가장 필요한 은총 얻어주시길 애원 하나이다.

주님은 당신의 가장 작은 청이라도 거절치 않으시니 가나의 잔치에서처럼 오늘
저를 위해 아드님께 다시한번 항만씀만 속삭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주님께 드릴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제 삶만에서 진실을 깨달을수 있도록 한줄기 빛을 제마음에 비추어 주시길
빌어주소서. 부디 제가 주님의 문중에 불충하여 주님을 거스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저는 저의 비열함과 죄스러움으로 존엄하신 주님 앞에 온갖
나아가기 두렵나이다. 어머니. 제가 기도 드릴 때에 제곁에 계시어 주십시오.

저는 약하고 힘이 없음을 잘 압니다.

책에서 읽은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 내가 Elisabeth 를 사랑으로 방문 하였듯이 너희 에게도 사랑 으로 방문 하고 싶다. 나는 너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함께 기도 하기 원한다. 어머니, 저를 위해 Elisabeth 를 방문 하신 일을 새로이 하시고 제 영혼 에 아기 예수님을 모셔와 주십시오.

오! 내 영의 어머니 시여, 하느님 외에 그 누가 당신보다 더 깊이 제 구원을 열망 하고 있겠 나 이까?

부디 제 구원의 힘이 되어 주소서. 진정 당신 나의 어머니 되심을 제게 보여 주소서. 당신 자비의 깊으심을 제게 보여 주소서.

종교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마드님 따라 갈바리 험한 산길 오르셨으니 당신의 모범 따라 살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어 신뢰 가운데 주님의 인도 하심 받아 들이고 그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 우리를 당신 마드님 과 화해 시켜주시고 마드님 께 되돌려 주시어 우리를 그리소도 께 봉헌해 주소서.

천상의 어머니시여,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어머니 의 Magnificat 이 넘쳐 흐르게 하시어 어머니 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의 고신 자비를 영원히 찬미 하게 하소서.

2004. 5월22일. 성모의 밤에

이토록 오랜 세월 저를 참아 기라려 주신 주님 라 성모님 께 마음을 아하여 찬미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유상나.문밖.

미리 가본 터키 성지 순례

- 트로아스(트로이) -

트로아스(트로이)라면 누구나 기원전 9세기 스미르나 출신 장님 호메로스가 쓴 양대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떠올린다. 호메로스는 기원전 13세기 트로아스 임금 프리암과 그리스 연합군 간의 장기전, 목마를 이용한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를 내용으로 하여 <일리아드>를 엮고, 이어 그리스군의 험난한 귀국을 소재로 하여 <오디세이>를 엮었다. 기원전 13세기 프리암 시대의 유적(남쪽 성문), 기원전 9세기 호메로스 시대의 유적(기원전 9세기 신전)은 트로아스 폐허인 히사르릭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옛 트로아스는 이미 알렉산더 대왕 때 퇴적 현상으로 항구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대왕은 안티고누스장군과 리시마쿠스장군에게 명하여 옛 트로아스에서 남으로 5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항구를 건설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명명했다.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는 지금의 오두니스켈레시 마을 남쪽 1킬로미터 쯤에 있다. 잡초와 밀밭 여기저기에 성벽, 극장, 경기장, 목욕탕 잔해가 보일 뿐 옛 영화는 온데간데없다.

사도 바울로는 적어도 세 차례 이곳에 들렀다.

첫번째는, 제2차 전도여행중(50-52년경) 여기서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 나서 그리스로 건너와 도와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곧장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북부 네아폴리스(지금의 카발라) 항구로 갔고 두번째는 제3차 전도여행중(53-58년경) 에페소 에서 27개월 가까이 전도한 다음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로 와서 전에 고린토 교회로 심부름 보낸 디도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했으나 허사였다. 마지막 세번째는 58년경 제 3차 전도 여행을 완수하고 고린토를 떠나 필립비에서 과월절을 보내고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에 와서 한 주간 동안 머물렀다. 바울로는 안식일 다음날(토요일 저녁때) 그곳 교우들과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다음날 떠날 예정인지라 석별의 정을 나누느라 밤이 깊도록 설교하는 바람에 유디코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겼다. 사도행전을 읽어본 이들은 누구나 아는 대로 비극은 희극으로 끝났다. 그 이튿날 바울로는 배를 타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에서 아쑈(지금은 베람칼레) 까지는 걸어갔다. 오늘날의 국도로 정확히 67킬로미터. 아쑈에서 다시 승선하여 미딜레네섬(지금의 레스보스섬), 사모스섬(일명 시삼섬)을 거쳐 밀레도스에서 하선하여 에페소 원로들에게 그 유명한 고별 연설을 했다.

관련 성서구절: 사도행전 16장 6-11절

- 에페소 -

바울로는 제 2차 전도여행 때(50-52년경) 고린토 교회를 창립한 다음, 브리스킬라와 아퀼라 부부를 데리고 고린토 동쪽 외항 겐크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페소에 상륙하여 거기에 부부를 남겨두고 자신은 가이사리아와 예루살렘을 거쳐 전도 출발지 안티오키아로 되돌아 갔다. 그 무렵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명설교가 아폴로가 에페소에 이어 고린토에서 전도했다. 53년경 바울로는 제3차 전도여행(53-58년경)을 떠나 우선 터키 중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과 그 남쪽 프리기아 지방 교회들(데드베, 리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을 돌아보고 나서 에페소로 내려가 무려 27개월 가까이 전도했다. 에페소에서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바울로 잣니이 말할 만큼 전도가 잘되었다.

또한 제자 에바프라를 450여 리 동쪽으로 보내어 콜로사이(지금의 호나즈), 라오디게이아, 히에라폴리스(지금의 파묵칼레)에도 교회들을 세웠다. 바울로는 에페소에서 편지를 여러 편 썼다. 에페소에는 옛 시내와 아야솔루크 요새 중간지점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다. 아르테미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라고 한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평판이 있었고 온 아시아에서 순례객들이 모여들었다. 에페소 은장이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 순례객들에게 팔아서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바울로의 활발한 전도로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은장이 대표 데메드리오가 동료 은장이들과 시민들을 선동하니 시민들이 바울로의 일행 가이오와 아리스다르코를 노천 극장(터키어로 파나이르 디어산, 그리스어로 퍼온산 기슭에 있다)으로 끌고 가서 난동을 피웠다. 바울로는 에페소 로마군 병영에서 옥고를 치렀는데 로마군은 항구 동쪽 산에 주둔 했다는 설이 있다. 58년경 바울로는 고린토 교회에서 로마서를 집필한 다음 필립비 교회에서 과월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스 항구에 들러 거기서 북쪽으로 50킬로미터 떨어진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와서 감동적인 작별인사를 했다고 한다.

에페소 시민들은 본디 아나톨리아 토속 여신 곧 풍요와 다산의 여신 퀴벨레를 섬겼다. 그러다가 그리스인들의 영향을 받아 언제부터인가 그리스의 풍요와 다산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게 되었다. 에페소의 아르테미스가 퀴벨레를 승계한 것이다. 그 증거로 에페소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양팔 위에 여신 퀴벨레의 애완동물인 사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원전 4세기에 재건된 신전은 길이 105미터 넓이 55평방 미터로 아름답기 그지없어 당시 세계에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신전은 서기 265년 또 다시 재건되었으나 곧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지위를 굳힘으로써 인기를 잃고 말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에페소에 성 요한 성당을 짓고 또 콘스탄티노플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지을 때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허물어 건축 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신전은 모두 파괴되었다. 지금은 비가 오면 높이 되는 저지대에 돌기둥 하나가 서 있을 뿐이다. 에페소 박물관 아르테미스 전시실에는 에페소 시청에서 출토된 아르테미스 여신상 두 개가 있다. 첫째 것은 1세기 작품으로, 큰 아르테미스'라 하고 둘째 것은 2세기 작품으로, 아름다운 아르테미스'라 한다. 여신 양팔에는 사자상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는 유방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사실은 유방이 아니고 황소 불알들이다. 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가슴 아래쪽에는 사자, 황소 등이 셋씩 새겨져 있다. 아르테미스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이다.

노천 극장에서 아르키디안 도로를 따라 항구 쪽으로 100여 미터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5세기 초엽에 지은 성모성당이 있다. 그 터는 성모께서 요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에페소로 옮겨와 살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왔는데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 성당은 교회 사상 성모께 봉헌한 맨 첫번째 성당이다.

관련 성서구절: 사도행전 19장 24-40

참조: 정양모 „ 위대한 여행, 사도 바울로의 발자취를 따라“

7 월의 독서자 (햇빛반)

일	독 서 자
4 일	한독부부
11 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18 일	리간재(시몬) 노정자(수산나)
25 일	김부남(베드로) 박우열(루치아)

8 월의 독서자 : 동글레반

제병, 포도주 봉헌자

7 월 04 일: 정정숙(아나벨), 정명옥(살로메)
 7 월 11 일: 김재관(토마스), 박건숙(루치아)
 7 월 18 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7 월 25 일: 박진옥(도미니코), 조유진(도미니카)
 8 월 01 일: 심동근(다니엘), 심선옥(도미니카)

♪ 카페당번 순서 ♪

7 월 04 일: 동글레반
 7 월 11 일: 무궁화반
 7 월 18 일: 레지오마리아(죄인의 의탁)
 7 월 25 일: 햇빛반
 8 월 01 일: 은총반

☺ 주일안내 ☺

7 월 04 일: 비둘기반
 7 월 11 일, 7 월 18 일: 청년
 7 월 25 일, 8 월 01 일: 청소년

7 월 모임

- ◎ 사목회의: 4 일(일) 예수성심성당
- ◎ 반장회의: 22 일(목) 사제관 친교실
- 레지오 마리아
 - 자비의 모후: 매 주 (월)
19 시 30 분 사제관 친교실
 - 죄인의 의탁, 평화의 모후· 믿는 이들의 모후
: 매 주 (화)
19 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 기 도 회: 둘째 주, 넷째 주 (목)
16 시 사제관 친교실
- 성 가 대: 매 주 (수)
19 시 30 분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 울뜨레아 회합: 18 일 미사후.

7 월 반 복음 나누기

- ▶ 햇 빛 반 : 7 월 18 일 미사후
Hammer Park 에서
- ▶ 무궁화반: 추후 알림
- ▶ 비둘기반: 추후 알림
- ▶ 동글레반: 추후 알림
- ▶ 살 롬 반: 7 월 17 일 19 시 30 분
오명순 마리아님 가정에서
- ▶ 은 총 반 : 추후 알림

7 월 영명 축일

- ▶ 본명과 축일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분은
편집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Hamburg 공동체 -----

7 월

- 01 일 안토니오 박진성
- 03 일 토마스 Strobel, 이정수, 홍종각, 강신행
- 04 일 엘리자벳 엄영희, 최백화
- 11 일 베로니카 김매자, 최선미
- 21 일 다니엘 김무송, 심동근
- 22 일 막달레나 김원자
- 24 일 크리스토프 김영기, 이재훈, 최세원
크리스티나 김정옥, 하진
- 25 일 야고보 김형웅
테아 유수선
- 26 일 안나 이정은, 김정아
아나벨 한성지, 정정숙
마리안나 한말조
- 28 일 빅토 허두옥

Bremen 공동체 -----

- 03 일 토마스 구재웅
- 08 일 아드리아스 전남진
- 16 일 마리아 양봉자
- 25 일 야고보 김영주

Hannover 공동체 -----

- 11 일 베네딕도(분도) 문동철
베네딕다(분다) Rathenow 병진

Osnabrück 공동체 -----

- 09 일 아드리엔 아드리엔, Wenzel
- 24 일 크리스티나 김미영

Braunschweig 공동체 -----

- 21 일 다니엘 이한수
- 26 일 안나 임지애

소식

▶ 6월2일 (수) : 사목회의

- 1) „본당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 (5월30일)
 - 거리가 가까워서 여러모로 좋았다.
 - 야외 미사 분위기도 좋았다.
 - 술(소주)은 없었던 것에 반응이 좋지 않아서 배구대회에는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
 - 먹다 남은 음식과 음료수 등을 버린 것이 너무 많았다.
 - 공동 오락 시간에 남자 어른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했었다.
- 2) 한인 친선 배구 대회 (6월5일)
 - 장비 및 물품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 쓰레기를 분류하여 수집한다.
 - 음식과 음료를 철저히 관리한다.
 - 음료수는 레지오에서 관리하며 빈병을 반납한 후 새 병을 가져가게 한다.
 - 일회용 컵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준비한다. (복음화 분과 준비)
- 3) 불우이웃돕기
 -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참사를 당한 동포들에게 5월 30일 특별헌금과 본당 예산액 1%를 합하여 보낸다.

▶ 본당주최 „한인친선 배구대회“

지난 6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함부르크 시립 공원에서 개최된 “ 제 31 회 한인 친선 배구 대회 ”가 함부르크 교민들과 교우님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치루어 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독 대사관 조윤수 총영사님을 비롯하여 함부르크 김창진 한인회장님, 그리고 각계 내빈들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명한 하늘 아래 개회식이 진행 되었습니다.

15 개 단체에서 33 개팀이 참가한 배구대회 종합우승은 200 점을 득점한 새한인교회에서, 준우승에는 180 점을 득점한 천주교회에서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자부(일반):

우승: 천주교회, 준우승: 경제인협회,
3 등: 순복음소망교회

- 여자부(일반):

우승: 여성회, 준우승: 한인교회, 3 위: 천주교회

- 청소년(남자) :

우승: 새한인교회, 준우승: 선교교회,
3 위: 천주교회

- 청소년 (여자) :

우승: 새한인교회, 준우승: 순복음소망교회
3 위: 한인교회.

본당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들과 목이 아프도록 응원 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 준비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수고들 해 주신 교우님들, 음식들을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자매님들,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의 아침식사 빵을 준비해오신 심동근(다니엘) 부부님, 그밖에 도움을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구대회 결산

제 31 회 배구대회는 2690 유로 (교우가정: 1590 유로, 외부단체 및 개인: 1100 유로) 찬조금과 우승트로피, 음식, 과일 등을 기증해 주셨고 상품, 비품, 음료수, 소모품 등 구입과 자동차, 이동화장실, 발전기 임대료를 포함하여 2093.70 유로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번 배구대회는 596.30 유로의 흑자를 낸 대회가 됩니다.

제 31 회 한인친선 배구대회 찬조자 명단 (무순)

1)외부 단체 및 개인

박영국, 신창영, 제일농장(아가다), 한인회, 순복음소망교회,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새한인교회, 한인여성회, 주 사랑교회, 한인교회, 복독 그웍이우프회, 동호회, 선교교회,민주평통 함부르크지회, 한인학교.

제 31 회 한인친선 배구대회 찬조자 명단 (무순)

2) 본당교우

강일남, 김대현, 박학전, 이기열, 박춘실, 진태근, 김두영, 김부남, 서상부, 최화영, 이정수, 박진옥, 강신행, 최장용, 김삼용, 윤용기, 김재관, 서세원, 홍종각, 백정선, 김치수, 리간재, 남궁춘배, 이경규, 김동수, 심동근, 현윤건, 허길조, 정순문, 이영희, 신순자.

▶ 6월 10일(목)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주교좌 대성당에서 19시 미사 미사후 Hansa Platz 까지 성체 거동이 있었고 미사 중에는 독서와 신자들의 기도가, 성체거동 시에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 말로 바쳤습니다.

▶ 6월 13일(주일) 배구 대회 봉사자 평가회의

- 1) 대회장 안에서의 영업
 - 신문에 광고하여 주최측에 미리 신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자.
 - 입구에서 제지하여 차가 공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공원 밖에서만 영업하도록 하자.
 - 대회에 지장이 없으면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
- 2) 모단체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선수로 뛰고 있는데 허용해 주어야 하는지?
 - 한독 부부 및 자녀일 경우에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
- 3) 행사 후 장비 및 물품 정리
 - 행사가 끝난 후 뒷처리 하는데 협조가 항상 부족하였다. 함께 도와서 마치도록 하자. 특히 청소년들의 노력이 요망된다.
- 4) 상품(부상)
 - 청소년들이 상품(커피)를 받고 실망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나이에 맞는 상품을 준비하자.
- 5) 참가상을 없앤 것에 대하여
 - 금년에 없었던 참가상에 대한 질문과 불평이 많았다. 인원이 적은 단체나 고령자들이 많은 단체에서 끝까지 참가하는데 보람과 의욕을 갖도록 배려하자. 교민들과 각 단체 그리고 교우들의 재정적 협조도 참고해야 한다.
 - 참가상으로 각 단체에게 배구공 1개씩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 6) 장년팀 및 청소년 A, B팀 구성
 - 남녀 혼성 장년팀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
 - 각 단체 청소년 팀은 A, B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
- 7) 음식 및 음료수 관리
 - 레지오에서 음식 및 음료수 관리를 하여 버리는 음식이 적었고 음료수도 많은 양이 절약되었다.
- 8) 일회용컵 사용방법

- 목에 거는 컵은 1회용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으로 끈을 달아 판매하며 본인이 보관하도록 하자.

9) 쓰레기 분류 수집

- 분류 수집 효과가 대단히 좋았다.

10) 대회 장소 허가

- 2003년도와 2004년도 장소 허가가 어려움이 많았다. 6월 두 번째 토요일로 정하여 5년치를 신청하자.

11) 화장실

-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소 및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자.

▶ 6월 14일-18일 (월~금) : 주임 신부님께서는 영국에서 열리는 유럽 사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 6월 25일(금) 오전 7시 30분 미사 중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 7월 8일(목) 저녁 8시에 이윤수(엘리자벳)

자매님이 Musikhalle (kleiner Saal) 에서 Konzertexamen (플루트 연주회)을 갖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석을 바랍니다.

☺ 축하드립니다.

박준하(막시밀리안)

박인성(실베리오), 이현주(레아) 아드님

정다현(도로테아)

정창호(유스티노), 이동은(마리아) 따님

Jona Schulze(요나)

Joerg Schulze, 홍명주(젼마) 아드님

▶ 6월 25일(금) 레지오 단원들께서 사제관 친교실 대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성가대 야외 소풍: 8월 7일 부부동반 Klein Borstel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 하계 방학

6월24일(목)부터 8월4일(수)까지 여름방학입니다.

„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거기 없다.

미래에 억매이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을 만날 수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산다. „

- 석가모니 -

우리들의 정성

주일	5 월 30 일	6 월 6 일	6 월 13 일	6 월 20 일
계 (euro)	234,11	189,21	159.18	175,40

지방 공동체 소식

Bremen 공동체 -----

Hannover 공동체 -----

Osnabrück 공동체 -----

▶ 이제민 본당신부님께서는 6월 11일(금) 오스나부르크에 오셔서 교우 가정을 방문하시고 이튿날 오전에는 내년 “본당의 날” (2005년 5월 15일) 행사 장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한우(바오로) 공동체 회장의 안내로 Cloppenburg-Bethen 천주교 순례지를 둘러보시고 인근 민속박물관 (Freilicht Museum)도 견학하셨습니다. 이날 저녁 미사에서 신부님께서는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본 정신에 대해 강론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성체를 영하거나, 나를 위하여 세상 것들(재물, 명예 등)을 먹고 삼키지 말고, 남을 먹여주고, 남을 위하여 내 몸과 내 것들을 내어주고, 남에게 먹혀 주는 자세가 되어야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환영합니다.** 허윤선(아가다) 자매님이 공동체에 새로 오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김미영(크리스티나, 김연식 안드레아스 형제님댁)양이 올해 독일연방 청소년 음악 경연 대회에서 바이올린부문 2 등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피아노부문 2 등상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미영, 크리스티나!! 짹짹.....

Braunschweig 공동체 -----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본당이 그동안 준비한 성지 순례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례객은 저를 포함하여 이미 45명이 신청을 마감하였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 다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마음 아플 뿐입니다.

순례의 일정과 정확한 요금은 곧 각 개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행사와 열심히 일정과 요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처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순례에도 여러 지역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저 멀리 한국, 호주, 스페인을 비롯하여, 우리 본당의 관할 구역인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공동체, 그리고 오스나부르크와 브레멘 공동체에서 여러 형제님들이 참석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순례에 참석하게 될 때까지 책에서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바오로의 서간을 읽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순례가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이제민

7 월 전례 및 행사

7 월	요일	내 용
1	목	19 시 사제관 친교실에서 미사와 성시간, 봉성체
2	금	
3	토	
4	일	15 시 미사후 예수성심성당 회의실에서 사목회의
5	월	
6	화	
7	수	
8	목	
9	금	
10	토	
11	일	
12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18	일	15 시 미사후 본당 울뜨레아 회합
19	월	
20	화	
21	수	
22	목	19 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에서 반장회의
23	금	
24	토	
25	일	
26	월	
27	화	
28	수	
29	목	
30	금	
31	토	
비 고		